

<2020년 2월 16일 주일 말씀> 요약

☞ 교단의 공식 말씀 문서 아님니다, 참고 바랍니다.

## 부활의 기쁨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전초: 정조은 목사님>

◆ 기독교 최고의 기쁨은 메시아 맞은 것, 그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환난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여 계속 역사를 펴나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최고 기쁨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영이 부활하였으므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영의 부활이 있었기에 2000년 동안 역사를 펴게 되었습니다.

◆ 섭리 역사도 신약 역사같이 동시성으로 흘러갑니다.

주와 같이 시대의 십자가를 져주고 부활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새 역사를 펴가는 기쁨과 이상의 세계가 부활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휴거되고 부활의 역사를 맞은 우리는 진정한 하늘 역사, 참역사, 성경에 예언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으면 부활이 없었을 것이나, 의인으로서 돌아가셨기에 하늘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의인으로서 죄를 대신했기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의인이기에 부활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 이 시대가 끝까지 모르고 대함으로 10일 동안 고난을 받아, 시대 사명자도, 우리도 시대 십자가를 졌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주도 우리도 환난,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기쁨의 삶, 휴거의 삶이 좌우됩니다.

◆ 부활을 확실히 깨닫고 부활의 삶을 누리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부활 되었다면, 주와 함께 계속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할수록 더욱 빛이 나는 부활의 새역사입니다.

주님의 조건과 사랑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겨온 삶을 생각하며, 부활한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

◆ 태어나는 것이 크고 기쁜 일이고, 죽음, 환난,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크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다시 살아난 것이 귀하고 큼니다. 종교적으로는 영원한 삶이 좌우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신은 성장이 없지만,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므로 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신 기간이 30년입니다.

구원자로서 성장하는 기간에 정신과 행한 일이 다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는 다른 성장 기간을 가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 30살부터 시작했습니다.

◆ 예수님은 사망권의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부활하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대의 부활,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생활의 부활을 하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기다렸던 희망이 예수님 오셔서 이뤄지고, 기쁨의 세계, 하나님 사랑의 세계, 자녀권 역사, 메시아의 엄청난 구원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쓰고 행하셨지요.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같이 자녀권이 되어,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 여러분은 종의 세계를 안 살아봐서 모를 거예요.

머슴살이 종과 종교적인 종은 달라요. 종교적인 종은 영적으로 벗어날 수 없고, 영적인 고통을 같이 받으니, 큰 고통입니다. 자유를 받은 부활 역사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종살이를 했었기에, 종급과 고통에서 벗어나 신약에 왔으니 기뻐서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 구약 성경 읽으며 은혜받는 것은,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종들이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까다롭고 무서운 율례를 지키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주 번거로운 제사법으로, 양, 비둘기를 아주 깨끗한 것만 골라 매일

사 와야 합니다. 우리는 몸만 와서 감사 헌금하면 끝납니다. 안식 일에는 5리(약 2km)도 못 가게 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죠.

◆ 그리고 무서운 할례(남성의 성기 끝 살가죽을 끊는 것)법이 있어요. 어릴 때 벗겨놓고, 할례? 안 할례? 묻는 것도 없이 할례를 칼로 합니다. 신약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 음식도 비늘 달린 것,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옷차림까지 다 바닥 끌리는 것을 입어야 하고, 엄청 귀찮을 거예요.

이 시대같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들이 커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데.’ 하며 하나님은 얼마나 신약을 기다렸겠어요.

◆ 여자들은 무시하고, 모임에 참여도 안 시킵니다. 회교인들이 구약식으로 합니다. 여자들 법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신약 때부터 예수님이 다 폐지하니까 부활의 기쁨이 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제사법을 폐하고 이상세계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처해 보지 않아서 그 기쁨을 다 모릅니다.

선생은 영계 가서, 그때 그 시대에 가서 배웠습니다.

◆ 내가 예수님 설교 듣고 싶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을 내가 말하듯이 읽어라. 네가 체질이 배어야 한다.” 그렇게 소리 내어 성경을 읽으니,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통해 설교하는 것이 느껴지고, 말하는 것도 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듯이, 나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상 갖고 성장한 것입니다.**

◆ 제사장,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악평하고 멸시하고, 메시아 만왕의 왕을 때리고, 언덕 높은 곳에서 떠밀었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할까 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내가 받은 것을 볼 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메시아가 그들과 같이 싸움하면 안 되니까, 정당방위도 안 하셨어요. **사랑의 본체로서** 귀엽게 보고, 넘어져도 허허 웃고, 예수님의 심정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재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 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사랑해서, 좋아해서, 구원하려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떠나가신 것입니다.

◆ **여러분도 예수님 같은 마음과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선생님도 할 수 없어 참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고 하면서 행해 온 것입니다.**

◆ 죽을 때는 사실상 평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들이 몰라서 하는 일이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소 신앙입니다.

역시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할래?” 물었을 때 대답 잘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 극적인 종교인들, 무서운 율법에 있는 자들이 악한 대로, 언론과 무지한 자들 동원해서, 예수님을 법적으로 최고 악을 행한 죄인으로 판정했습니다.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게 해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가장 마음 아프고, 심정 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군중이 있었으면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었어도 안 했지요. 쇠 채찍으로 때리고 엄청났는데, 나도 영계 가서 쇠 채찍 맞아보고, 면도칼로 살 베는 것을 겪었습니다.

◆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모르고 저리 대하니, 분노가 나지만,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지한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 참음으로 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은 자기 아들이 죽임당하면 못 참고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가 실수했어도 용서하시고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죄인 대신 십자가 지면 용서하셨습니다.**

◆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구약법을 따르지 않고 신약법을 따

르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기뻐하라.” 여자들이 충격받고 살아나셨길 바라며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며 잘 지냈나? 물으니, 두려움도 잊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남자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믿은 사람들만 기뻐했지요. 그 후 40일 동안 자주 나타나셨고, 하늘의 때에 따라 영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 만약 육신이 살아나셨으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들과 같이 역사를 하며, 3년보다 5배는 더 뛰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 육체가 살아서 하신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니, “죄인을 대신했기에 죄인 취급을 똑같이 받은 것이다. 죄인 취급을 받아서 옥에 간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했기에, 옥에서 3일 동안 쫓겨났을 치르며,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을 전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가게 되어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에게도 사람들이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오셨군요.” 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감옥에서도 전하고 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기쁨으로 2000년 역사를 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평소에 죄인으로 살았으면, 완전히 부활을 못 합니다. 의인이기에, 때가 되면 태양같이 솟아난다고 했지요.

◆ 예수님이 화난다고 다른 사람들 죽었으면 사형수가 되어 무기징역을 받아 못 나오죠. 영계 법은 미워하면 살인으로 무기징역입니다. 죄도 없는데 미워하면 영의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감사합니다. 그런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힘도 좋고, 250kg도 들고, 무술도 잘 하고, 태권도 유단자도 못 깨는 돌을 깨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한 번도 그들을 손 안 댔어요.

◆ 참는 것으로는 근성 때문에 못 참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쳐다보시는데, 이까짓 것을 못 참으면 되나, 예수님같이 사랑으로 이겨야지.” 긍휼히 보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적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끝나게 되고, 사랑의 역사를 이뤄야 합니다.

모든 자를 사랑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 이 시대도 예수님같이 성장하고 커서 결국 되었지요.

예수님 돌아가신 33살 이후, 34살부터 역사를 폈지요.

루터가 400년 전에 이미 제도를 뒤엎었는데도, 또 생긴 것입니다. 월명동 가지치기했는데, 또 자라니까 또 잘라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또 하나님과 같이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기성 교회 다니면서 정말 답답했던 자녀권 체제와 제도들이 있었죠.

◆ 부모의 간섭이 너무 해요. 내가 집에서 뽀박을 너무 잔인하게 받고, 하루에 70번씩 미쳤다 소리를 듣고, 나무가 비틀어지도록 형제에게 맞았습니다. 자녀법은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형제들도 간섭이 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을 벗어나게 되니, 여러분이 황태자를 만난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역사,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와 형제들, 종교 기성 형제들의 뽀박을 이기면서 행해왔습니다.

◆ 십자가 졌는데, 섭리를 따랐던 자들이 불신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르는 루시퍼가 불신했습니다.

섭리 따랐던 사람들이 불신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 예수님이 이방에 있을 때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시대 십자가를 지자. 한국에 가야 섭리 사람들도 살리고, 민족도 세계도 후에 할 수 있다. 죽음의 십자가 아니고, 환난의 십자가이

니 가자.” 하셨습니다.

◆ 종교, 정치, 재판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대한 10일, 10년 동안 고통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며 이겼습니다. 70만 통의 편지를 썼어요. 성령님과 늘 의논하고, 성자가 응원해 주시고 함께하시면서 했어요. 5만 잠언이 되게 쓰고, 설교도 2000번 이상, 시는 1000개 이상, 노래는 170곡을 받아 보내주고, 나와서 1000여 곡을 했어요. 볼펜 4400자루를 쓰고, 7000리를 뛰고, 백만 번 이상 체력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근본을 깨닫고, 많은 비밀을 받아냈고, 휴거의 역사를 했고, 나와서 부활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신약 역사와 동일하게, 이 시대 고난의 십자가를 10년 동안 지고, 안식일(2018. 2. 18. 일요일) 새벽 4시쯤에 다 받고 끝났습니다. 원래 법으로는 19일에 나오는 것인데, 18일 새벽에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가장 큰 기쁨과 이상의 날, 하나님과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 여자들이 무덤에 왔듯이, 여자 지도자들이 조은 목사와 함께 왔어요. 보고 받고 너희는 오지 말고, 가정의 형제들과 조용히 나가겠다고 했어요. 나와서 부활의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 하나님과는 대화했지만, 사람과는 대화를 10년 동안 안 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 316관에서 사람들이 말씀해 달라고 해서, 3일 동안 전해줬어요. 묶인 것이 풀려야 하니, 계속 운동하여 몸이 풀리고 부기 빠져서 6개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뛰었습니다.

◆ 신부, 신랑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다시 사랑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휴거 역사를 계속 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100% 극적으로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야 부활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성에서 자녀급 부활 되었다가, 이 시대에 와서 신부급으로 부활 되었지요. 앞으로도 기쁨으로 부활의 역사를 펴나갑니다. 이때 더욱 새로운 부활, 깨닫는 부활, 행하는 부활이 되기 바랍니다.

◆ 코로나가 있어도, 기쁨의 부활이고 어제 날씨도 좋으니, 밴드

악단 오라고 할지, 성령님께 다섯 번 물었는데, 성령님이 오지 못하게 허락 안 하시고,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성령님, 나, 사회자 오면 다 온 것이다.

새벽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추워요.

역시 어렵히 알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부활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 호주 산불, 폭우가 내려서 꺼졌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 집입니다.” 이메일 왔어요. 하나를 보고, 민족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호주에 비가 왔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는 겁이 많아서, 식당도 다 닫고, 엄청 조심하니, 코로나가 많이 안 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하니, 우리나라가 더 빨리 진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 건강하다고 다 내보냈습니다. 부활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괴롭게 함으로 다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조심해야 해요.

◆ 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아요. 평소 신앙 잘하고, 처소에서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하는 것을 볼 때 부활할 만큼 되었다, 했어요. 세계 전체가 부활 역사 이루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기쁨과 이상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요. 영도 육도 민족도 세계도 깨닫고, 하나님과 자기 행위를 깨닫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부의 삶을 살라고 부활시켜 주셨으니, 항상 뜨거운 사랑, 뜨거운 진리가 차고 넘치게 해야 합니다.

◆ 부활이 얼마나 좋고 기쁜지 깨닫고, 열심히 부활한 삶을 계속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생명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심어주고, 의로 부활 되니 의를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부활 되었으니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며 부활의 역사를 기쁨으로 해 나가기 바랍니다.

|       |  |  |  |  |  |  |  |
|-------|--|--|--|--|--|--|--|
| 말씀 읽음 |  |  |  |  |  |  |  |
|-------|--|--|--|--|--|--|--|